

“작은 도움이 아이들 삶의 방향 바꿉니다”

이영창광주 바른안과의원장

여동생 이름 딴 ‘은영 장학사업’ 운영
2020년 초록우산 통해 1억 후원 약속
최근 1억 추가...향후 5년간 10명 지원
“또 다른 나눔 이어진다면 선한 영향력”

“제 작은 마음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진다면 선한 영향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영창(51·사진) 바른안과의원 원장이 지역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초록우산을 통해 ‘이은영 바른꿈 장학사업’ 후원금 1억원을 추가 약속했다. 2020년 1차 후원에 이어 또다시 1억원을 약속한 것으로, 장학사업은 향후 5년간 광주 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10명을 매년 선정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 출생인 이 원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2001년 졸업한 뒤 인턴과 군의관 복무를 거쳐 안과 전문의의 길을 걸었다.

이후 진월동 아이안과 그룹병원에서 약 6년간 근무했으며 2016년 광산구 수완동에 바른안과의원을 개원했다.

안과를 전공한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 부친 역시 안과 의사여서 자연스럽게 같은 길을 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금의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가족이었다.

이 원장은 중학교 2학년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기억하며 동생의 이름을 딴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15일 “동생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금액의 후원을 선택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생 때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후원을 이어가게 된 배경에는 아이들의 변화도 한 몫을 차지했다.

이 원장은 초록우산을 통해 전달받은 아이들



의 감사편지와 성장 이야기를 접하며 장학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들에게 동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장해 또 다른 누군가를 돕

는 사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나눔은 실제 또 다른 나눔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원장의 선행 소식을 접한 인천 지역 의사가 같은 취지의 장학사업에 동참한 것이다.

이 원장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제가 한 일을 보고 다른 이가 ‘이런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함께하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확산하는 것, 그런게 아닐까 싶다”고 담담하게 전했다.

장학사업 외에도 이 원장은 의료 봉사도 실천하고 있다. 바른안과의원은 지역 자활 관련 기관과 연계한 건강 검진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백내장 수술 지원 등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경로당을 직접 찾아 진료도 보기도 했다.

이영창 원장은 “가장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



구례소방, 산수유꽃축제 안전대책 ‘만전’

구례소방서는 15일 “전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구례 산동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7회 구례 산수유꽃축제’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행사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소방 펌프차·구급차 전진배치, 심폐소생술 체험실습, 의용소방대 안전순찰 등을 실시하고 응급처치 물품 비치, 행사시간 초기진압과 출동태세 확립, 안전총괄 소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만조 구례소방서장은 “구례군의 대표 행사인 산수유꽃제가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김세중기자



담양 중앙파출소, 아동안전지킴이 간담회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는 “최근 개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아동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지킴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 등 아동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희 중앙파출소장은 “현장 맞춤형 직무 교육과 실효성 있는 지킴이 운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담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국제청소년연합 해외봉사 ‘굿뉴스코 페스티벌’ 성료

국제청소년연합(IYF) 대학생 해외봉사 프로그램 ‘굿뉴스코’(Good News Corps)의 활동을 소개하는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5일 IYF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국 12개 도시와 태국 방콕에서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페스티벌에서는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으로 활동했던 대학생들의 해외 봉사활동 사례와 문화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페스티벌에는 누적 2만여명이 함께했다.

올해로 25년째 개최 중인 굿뉴스코 페스티벌

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세계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IYF는 이번 페스티벌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2월 파견될 26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원 모집을 시작했다. 상반기 모집 마감은 오는 6월27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 사전 교육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전세계 97개국 가운데 한 곳에 파견된다.

사전 교육 기간 중 우수 학생에게는 항공료 일부가 지원된다.

박희중기자



이남기 장성신협 이사장, 취약계층에 쌀 기부

장성신협은 “최근 이남기 제11대 이사장이 이·취임식 대신 마련한 ‘사랑의 쌀’ 2천500kg을 지역사회에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부된 쌀은 장성군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신임 이사장은 취약계층 지원

등 따뜻한 금융 확대, 조합원 중심 서비스 혁신, 건전 경영 지속 등 광주·전남 대표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이남기 신임 이사장은 “취임의 기쁨을 화려한 행사보다는 지역사회와 조용히 나누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희망이 되는 든든한 신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광산구,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 현장 점검

광주 광산구는 “최근 박병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의 막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예산 100여억원을 투입해 복합문화돌봄시설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노후 주택 정비 등 지역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규모 도시 재생 프로젝트다.

구는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광산중학교부터 송우초등학교 남측 보도 폭을 넓히고, 학교 담장을 철거해 보도를 새롭게 신선했다.

박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통학로 개선 사업 현장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와 이달 말 착공을 앞둔 지역 어르신들의 교류·여가 활동 거점인 ‘실버어울림 플랫폼’ 조성 대상지인 향약경로당을 방문해 추가 개선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육근기자

광주여상, 경제금융인증시험 ‘전국 1위’ 쾌거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15일 “경제·금융 동아리 ‘이코노베이션’이 제103회 경제금융인증시험(TESAT·테셋) 고교 동아리 부문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테셋’은 전국 고교생과 대학생, 금융권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경제 분석력과 실무 사고력을 검증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다.

이번 대회에는 3학년 서버리·이지운·서효영·이민서 학생을 비롯해 2학년 강혜원 학생 등 5명의 이코노베이션 회원이 대표 출전했다.

학생들은 경제 이론과 복합적인 시사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이번 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 ▲미시·거시경제 이론 ▲경제현안 분석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양근수 교장은 “금융기관 합격생을 꾸준히 배출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 취업 명문의 전통을 이



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상은 학교 전공 교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만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금융 특화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5년간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 공기업 63명, 시중은행 29명 등 금융권에 92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선욱기자

해남경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해남경찰서는 “최근 해남읍 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개학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단체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캠페인은 해남경찰서, 해남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 활동으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밝은 옷 착용, 보행 시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고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였다.



박미영 해남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목포스마일센터,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목포스마일센터는 “최근 목포해인여자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랜덤 채팅 앱과 SNS를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기프트콘이나 게임 아이템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심리적으로 피해를 지배하는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희경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그루밍 등 범죄



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부음

- ▲양봉란씨 별세, 송창영(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씨 모친상=발인 16일(월) 오전 8시30분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062-521-4444).
- ▲김영조씨 별세, 김정태(남도일보 중서부권취재본부장)·정태(웹툰라트 치과원장)·경애(참사랑약국 대표)씨 부친상, 오명진(영광공업고등학교 교장), 김경희(하나로문안약국 대표)씨 시부상, 신현일(새기건설 대표)씨 장인상=발인 17일(화) 오전 7시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 VVIP 301호(062-521-4444).
- ▲양해봉씨 별세, 양수근(담양경찰서장)씨 부친상=발인 17일(화)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장공실(062-250-4455).